

전기차 충전, 셀프주유보다 더 간편해진다

충전 플러그 연결만 하면 사용자 인증·결제 자동으로

한전 '플러그 앤 차지' 기술 개발...내년 신차부터 적용

한국전력은 전기차에 충전 플러그를 연결만 하면 사용자 인증과 결제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플러그 앤 차지' 충전기술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신기술은 전기차를 충전기와 연결하는 즉시 전기차에 저장된 차량정보와 결제정보를 이용해 별도의 사용자 확인과 결제 단계 없이 간편하게 충전하는 방식이다.

기존 충전방식은 충전식 회원카드인증이나 신용카드 결제가 필요해 사용자가 충전하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됐지만, '플러그 앤 차지' 충전은 충전기에 꽂기만 하면 사용자 인증과 결제가 자동적으로 이뤄진다.

전기차 제조사들은 2021년부터 이 방식이 적용된 전기차 출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전은 이에 맞춰 공용 급속충전기에 '플러그 앤 차지' 기능을 우선 적용할 계획으로, 내년이면 사용자들이 본격적으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향후 플러그 앤 차지 서비스를 위해 개발된 보안통신 인프라를 민간 충전사업자나 전기차 제조사에게도 제공해 초기 투자비용 부담 없이 플러그 앤 차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봉우 기자



오는 11일부터
공적 마스크 폐지

중복 구매·수량 제한 없어

오는 11일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제도를 종료하고, 마스크 공급을 시장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마스크 긴급수급조치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에서 '행정기법법' 등 법률안 7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령안, '마스크 긴급수급조치 고시' 제정안 등 일반안건 6건을 심의·의결했다.

'마스크 긴급수급조치 제정안'은 그간 약국 등을 통해 운영해온 공적 마스크 제도를 중단하고, 보건용 마스크 공급을 중복 구매와 수량 등 제한 없이 시장 자율에 맡기는 내용이다.

다만 병원으로 공급되고 있는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기능은 유지하고,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비율을 하루 생산량의 60%에서 80%로 확대한다. 또 보건용 마스크 당일 생산량의 30%로 제한한 수출 허용량은 월별 총량제로 변경해 마스크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수출과 국내 공급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부문은 소회가 많다"면서 마스크 수급 안정에 기여한 국민, 약사, 관계부처와 업계에 대해 각별한 감사를 표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 이전 상황에서 백신 역할을 하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신 국민 덕분에 방역에 성공할 수 있어 국민께 감사하고, 전국의 약사들이 봉사의 마음으로 공적 마스크 보급에 기여해 감사하다"며 "수급 안정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 준 관계 부처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뜻을 담아 대통령 명의 감사장을 대한약사회에 발송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의 투명하고 솔직한 공개, 5부제 시행, 국민들의 적극 협조, 마스크 수급 안정 등 과정은 우리 행정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다"면서 마스크 행정이 낡은 의미를 내각이 되새길 것을 당부했다.

정승호 기자

'동일생활권' 광주와 전남...경계 넘나드는 코로나19

광주 확진자 접촉한 전남도민 잇따라 확진...방역 비상



지난 6일 광주 동구청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선별진료소에서 구청 보건소 직원들이 차량에 탄 시민과 아이들을 상대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광주발 코로나19 확진 추세가 동일생활권인 전남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전남지역 일선 지자체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며 강력한 예방에 나섰다. 감염 확산 우려는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9면)

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목포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이 목포기독병원 외부선별진료소에서 검사결과 양성판정을 받고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2차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 여성은 전남 열이 나서 민간병원 선

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으며, 7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최종 확진판정을 받을 경우 전남 29번 확진자로 분류된다.

그는 광주 117번 확진자(40대 여성)와 광주 동구의 한 고시학원을 함께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17번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며, 방역당국은 해당 고시학원 수강생이 9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전남 영광군 불갑면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광주사랑교회와 관련된 광주 61번 확진자(50대 여성·광주 광산구)의 접촉자로 알려졌다.

또 광주지역 확진자와 광주의 한 사우나에서 접촉한 나주시민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국전력 함평지사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50대 여성(나주 남평 거주)은 지난달 28일 광주 광산구 신창동 'SM사우나'에서 광주 57번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전남 26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광주 북구 일곡중앙교회 집단감염의 여파도 전남으로 번질 기세다. 이른바 일곡중앙교회 슈퍼전파자는 전남 장성에 거주하며 일곡중앙교회에 다닌 60대 여성(광주

92번 확진자)으로 압축되고 있다.

이 여성은 지난달 27일 교회 행사 관련해 교회 내 식당에서 식사 준비를 했고 28일 일요예배와 모임을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광주와 동일생활권인 전남에서 잇따라 광주발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지자체마다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등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장성군은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4일부터 공공체육시설 휴관에 들어갔다. 현재 장성에는 총 27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이 있다. 이 가운데 실내 체육시설은 흥길동체육관, 실내수영장, 군민회관, 게이트볼장 등 15개소다.

함평군은 '함평 5일 시장'에 대해 7일 하루 임시 휴장조치를 내렸다.

지난 4일 지역 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전남도가 6일부로 도내 방역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다.

나주시와 영광군, 담양군 등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하며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전남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나주시와 화순, 담양, 장성, 함평군 등은 광주와 시내버스를 통해 교류할 정도"라며 "주민들 상당수가 광주에 거주하고, 광주시민 상당수도 해당 지역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상황이어서 감염확산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토깡벌에서 자라는 **농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